

행복경제학과 ‘좋은 삶’ 전통: 쾌락과 가치의 조화를 중심으로*

박 종 현**

요약

이 논문은 오늘날 행복연구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경제학과 좋은 삶 전통을 비교하였다. 사회적 비교, 쾌락 적응 그리고 기대수준의 상향 조정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행복경제학과 기존 경제학의 차이를 확인하고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제고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행복경제학의 설명방식을 검토하였다. 행복경제학이 행복의 측정 문제, 행복들 사이의 질적 차별성, 고통과 행복은 양립가능성 등에서 이론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좋은 삶 전통에 의해 해소될 수 있음을 밝혔다.

주제분류 : B030102

핵심 주제어 : 행복, 쾌락, 에우다이모니아, 좋은 삶

I. 머리말

그리스의 철학자들로부터 유럽 계몽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학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행복이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출현을 기점으로 주요 연구 대상이 행복에서 물질적 부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경제학에서는 물질적 부와 소득을 행복과 등치시키는 관행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행복의 주관적 성격에 주목하여 돈(=경제성장)이 행복(=자신의 총체적 삶에 대한 만족)을 살 수는 없다는 소위 ‘행복의 역

* 이 논문은 2014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e-mail: ecohis@gntech.ac.kr

설'이 제기되면서, 행복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지 못하는 경제학의 한계가 지적되었다(Easterlin, 1974).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후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최근 들어 몇몇 학자들에 의해 '행복경제학'의 이름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 벤담의 이론과 두뇌과학의 최근 연구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들의 핵심 주장은 행복의 경우 절대적 소득보다는 주관적 만족이 중요하며 소비의 한계효용은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인간은 과거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도 비교해 현재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을 형성해 간다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행복 관련 자료들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제도 설계의 가능성도 모색한다(Layard, 2005; Frey, 2008).

행복경제학은 경제성장이 반드시 소망스러운 것만은 아니며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학의 협소한 시야를 확장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절대적 소득은 물론 상대적 소득도 중시하며, 사회적 관계나 자기결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을 밝혔다는 점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을 각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삶의 만족도로 이해하려는 행복경제학의 방법론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 경제학에서도 행복한 삶을 일련의 즐거운 심리적 상태나 욕망이 단순히 충족된 삶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망들이 구현되는 삶이라고 이해하는 '좋은 삶' 전통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좋은 삶'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되었고 경제학자 케인스에 의해 주목을 받았던 행복에 관한 또 다른 관점이다(Carabelli and Cedrini, 2009; Bruni 2012; Skidelsky and Skidelsky, 2012; 김균, 2013).

이 논문은 오늘날 행복연구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경제학과 좋은 삶 전통을 비교하고 좋은 삶 전통이 기존의 행복경제학에 비해 행복에 관한 총체적 해명에 더 유효함을 밝히려고 한다. 제II장에서는 행복경제학의 출현과정을 살펴보고, 행복경제학이 기존 경제학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으며 어떠한 핵심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사회적 비교, 쾌락 적응 그리고 기대수준의 상향 조정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제고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행복경제학의 설명방식

을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행복을 설문조사와 자기평가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행복에 우열을 매길 수 있는지, 고통과 행복은 양립불가능한 것인지 등의 측면에서 행복경제학의 이론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Ⅳ장에서는 좋은 삶 전통이 행복경제학과 어떤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Ⅱ. 이스털린의 역설과 행복경제학의 출현

1. 이스털린의 역설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Easterlin(1974)은 전세계 나라들에서의 행복도와 국민총생산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다. 국가별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시계열 분석에서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응답한 수준이 1인당 소득의 증가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았다. 특히 1인당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소득이 이후 계속 증가하더라도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결과는 상반된 해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돈이 더 많을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다른 하나는 행복이 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털린의 역설'로 알려진 이러한 현상은 행복에 관한 기존 이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소득의 경우, 행복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 영향력이 대단히 미미해진다는 발견은 특정 국가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국가들에서도 견고하게 확인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역설을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보다 일관되게도 체계적으로 해명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행복경제학의 이름으로 본격화되었다.

2. 행복경제학의 출현과 주요 특징

행복경제학은, 행복이 경제학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세 편의 논문이 1997년 *Economic Journal*에 게재되었던 것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 논문들은 행복의 측정 문제와 관련해, 주관적 만족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그 응답을 종합해 행복의 크기를 재는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한 응답은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최상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안내자'로는 적절하다는 것이다. Oswald (1997)는 행복에 관한 기존의 자료들로부터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복이 경제적 성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미국의 경우 2차대전 이후 사람들의 전반적인 행복이 늘어난 정도가 대단히 미미했음을 확인하고, 돈이 약간의 행복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의 많은 부분은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얻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행복도는, 삼십대 초반이 가장 낮으며 이후 점점 늘어난다는 점에서, 전 생애에 걸쳐 U자 모양을 띠는 점을 발견했으며, 사람들을 특히 불행하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이 실업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행복에 관한 주관적 응답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경제학적 통찰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Frank(1997)는 '이스털린의 역설'의 정책적 함의를 상세히 검토하고, 상대적 소비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후생을 극대화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최적의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 소비가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그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내구재나 주택에 사용되는 자원을 교육이나 건강 그리고 여가 등에 전환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후생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Ng(1997)은 전통적인 후생경제학의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행복의 문제를 분석한다. 현대 경제학은 서수적 효용 개념과 개인의 선호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개인들 사이의 비교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위에, 측정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수적 효용(cardinal utility)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후생경제학의 초점을 1인당 GDP가 아니라 행복에 직접 맞출 것을 제안한다.

이들의 연구를 기점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국가와 시기를 대상

으로 실시한 행복의 결정요인들에 관한 광범위한 경험 연구들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과 2008년에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Layard(2005)와 Frey(2008)에 의해 일반인을 상대로 한 저서들이 출간됨으로써, 행복경제학은 학계를 넘어 광범위한 대중적 관심을 얻게 되었다. Layard(2005)와 Frey(2008)로 대표되는 행복경제학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행복, 주관적 안녕감, 기수적 효용

행복(happiness)의 사전적 정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life satisfaction) 또는 주관적으로 만족한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행복경제학은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규정한다. 행복경제학은 전체 삶이 개별적 순간들의 총합인 것처럼 삶의 만족이나 행복 역시 사람들이 개별적 순간들에서 누리는 효용들을 총합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복경제학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행복,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감은 측정 가능하며, 이러한 개념들은 전통적인 효용 개념과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대표적인 행복경제학자인 Layard(2005)는 행복은 극단적인 고통으로부터 극단적인 희열의 경험들로 채워지는 하나의 단일한 차원에서 측정이 가능하며, 개인 내는 물론 개인 간에도 합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

이러한 입장은 효용은 본성상 측정할 수 없으며, 관찰된 행위들만으로도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에 측정할 필요도 없다는 존 히크스(John Hicks)와 라이어널 로빈스(Lionel Robins) 이래의 '표준적' 경제이론과는 크게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²⁾ 행복경제학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복을 측정하고 효용 개념 속에 삶의 구체적 특성을 담아내려던 심리학의 연구성과들을 적극 수용하였다. 사람들이 '경험한 효용'을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는 물론 삶의 여러 요인

-
- 1) 행복은 실제적이고 객관적 현상이다. 행복은 최악의 고통과 비참함으로부터 송고한 기쁨과 만족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차원이다(Layard 2005).
 - 2) 표준적 경제이론은 사람들의 행태 또는 현시된 선호에서 효용을 추론하고 다시 이를 통해 선택 행위들을 설명한다. 이 경우 효용의 구체적 크기에 근거해 사람들 사이의 효용을 직접 기수적으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실증적인 수요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나 특성들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었다. 행복경제학은 특히 사람들의 선택이 표준적 경제이론의 가정과는 달리 합리적이지 않아 체계적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많다는 연구들이나 ‘의사결정 효용’(decision utility)과 ‘경험한 효용’(expected utility)의 비교 등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높은 소득으로 얻게 될 만족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우정 또는 사회적 관계처럼 물질적이지 않은 효용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이들은 또한 이론적 차원에서는 기수적인 효용 개념이 일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람 간, 시점 간, 국가 간 행복을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Kahneman et al., 1997; Frey, 2008).

(2) 행복의 측정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소득이 적합하다고 간주해 왔다. 그러나 행복경제학은 소득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으며, 관찰된 다양한 행위들 또한 각자의 행복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고 본다. 행복경제학은 대신 ‘주관적 안녕감’이 행복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 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전반적인 질에 관한 최상의 판단자는 당사자 자신이므로, 효용이나 안녕감에 관한 당사자들의 견해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이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설문조사에는 정서적·심리적 상태에 관한 질문과 더불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에 관한 질문도 같이 포함된다. 연구자들은 응답자들이 표시한 점수를 종합함으로써 그 사람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측정치들을 개념적으로 포괄해 표현한 용어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인 것이다.

주관적 안녕감은 질문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미리 설정된 숫자로 응답하도록 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행복도 조사인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나 유럽지표조사(Euro-Barometer Survey)도 바로 이러한 기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 측정기법은 질문들이 제시된 순서, 질문들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 적용된 점수체계, 실제 기분, 처리된 정

보의 선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운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행복을 측정하는 몇 가지 기법들이 행복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개인들을 뽑아 무선호출기 등을 주고 임의의 시점에 긍정적인 감성이나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일련의 질문들에 즉각적으로 답하도록 하고, 이러한 진술들을 집계함으로써 행복을 계산하려는 경험표본추출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 하루 동안의 활동들을 세분하고 응답자들이 각 활동들로부터 받은 감정을 범주화하여 재구성함으로써 행복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려는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 DRM),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사람들의 뇌가 어떤 활동 일 때 활성화되는지를 확인하는 뇌촬영기법(Brain Imaging) 등이 대표적이다. 행복경제학에 따르면, 주관적인 안녕감에 대한 여러 측정치들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행복에 관한 주관적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감을 일관성 있게 드러내는 신뢰할 만한 지표임을 시사한다(Frey, 2008).

(3) 사회적 비교, 쾌락 적응 그리고 기대수준의 상향 조정

행복경제학은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삶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만족들 또는 효용의 총합이라고 이해한다. 행복경제학은 사람들의 만족이 일차적으로 재화의 소비량에 좌우되지만 갈망 또는 기대수준(aspiration)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이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 및 소비에 따른 쾌락의 적응을 통해 욕구에 대한 나름의 기대수준을 형성하고 자신이 이뤄낸 소득이나 소비를 이러한 기대수준과 비교하면서 효용을 누리고 만족감을 얻게 된다. 이는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타인이나 과거와의 비교 속에서 형성되는 상대적 만족임을 뜻한다.

우선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부터 살펴보자. 인간은 육체적 생존과 물질적 안락을 향한 절대적 욕구에 더해 남보다 앞서기를 원하는 상대적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효용이나 만족감이 소득이나 재화의 절대적 소비는 물론 타인의 소득이나 소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전체 소득계층구조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심을 가진다. 이때 사회적 비교의 대상은 아래가 아니라 위쪽인데, 이는 사람들의 기대수준이 자신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이나 소비에 맞춰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비교 대상이 되는 준거집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며, 나의 소비가 늘어나더라도 비교 대상의 소비량이 더 많이 커졌다면 효용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Easterlin, 2006).

한편,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만족감이 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현상에 익숙해지고 만족감도 약화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자극이 주는 쾌락적 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을 '쾌락 적응'(hedonic adaptation)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들의 쾌락이 소비 수준 그 자체보다는 변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람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쾌락을 갈망하는 이유도 쾌락 적응 때문이다.³⁾ 적응이 완료되면, 쾌락이 주어진 설정값(set point) 수준으로 되돌아가므로,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적응은 자연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훌륭한 보호책으로 작용하지만, 상황이 좋을 때는 기쁨을 약화시킨다⁴⁾(Easterlin, 2006; Layard, 2005; 서은국, 2014).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펼치면서 비교와 적응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갈망 또는 기대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람들은 비교할 때 아래보다는 위를 보기 때문에 이미 달성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쾌락 적응 과정을 통해 소비수준

3) 적응은 심리학에서 특히 강조된다. 행복에 관한 심리학의 설명은 적응과 '설정값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각자의 행복 수준은 유전적 요인, 기질, 성격 등에 의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미리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에는 결혼, 복권 당첨, 입원 등의 사건으로 행복이나 불행의 감정을 크게 경험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쾌락의 적응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애초의 설정값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반면 행복에 관한 경제학의 지배적 견해는 사람들의 효용은 소득이나 재화의 소비량에 비례한다는 '다다익선이론'이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행복은 소득과 소비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 기존 경제학의 이러한 견해는 주어진 소비재들로부터 비롯되는 효용이 과거의 경험이나 타인의 소유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습관 형성(habit formation)이나 상호의존적 선호(interdependent preferences)가 행복의 결정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Lykken and Tellegen, 1996; Layard, 2005).

4) 서은국(2014)에 따르면, 쾌락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경험이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 값으로 되돌아가는 초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적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생물학적 이유다. 이 점을 분명히 할 경우,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는 통찰이 부각될 수 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서은국, 2014).

에 관한 사회적인 비교나 사회적 경쟁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도 있으며, 이러한 연쇄 과정을 통해 재화나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더욱 높아진다(Frederick and Loewenstein, 1999).⁵⁾ 행복경제학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정한 크기의 갈망 또는 기대수준을 형성하며, 각자의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 곧 행복은 이러한 기대수준과 실제로 성취한 수준 사이의 차이에 그리고 각각의 영역이 각자의 효용함수에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복경제학은 사회적 비교, 쾌락 적응, 기대수준의 변화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재화나 활동의 성격이 내재적 필요의 충족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외재적 욕구의 충족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사람들의 비교나 적응의 정도가 다르며 그로 인해 갈망의 상향조정 정도나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이때, 내재적 필요(intrinsic needs)란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효용을 제공하기에 목적 그 자체로서 원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이나 잠재능력의 실현과 관련한 욕구를 지칭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대감, 유능감, 자율 등이 거론된다.⁶⁾ 내재적 필요의 속성들은 절차적 효용(procedural utility)⁷⁾과 더불어 '몰입 경험'(flow)⁸⁾

5) "기대수준 상승"은 물질적인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비물질적인 것의 성취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승진하면 일시적으로 행복하지만 동시에 승진으로 인해 더 높은 지위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생긴다. 사람들은 또한 과거에는 덜 행복했다고 느끼며 미래에는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이런 비대칭성 역시 기대수준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할 때 현재의 기대수준에 근거해 과거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므로 과거에 소비한 재화들이 덜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반면 미래와 관련해서는 물질적으로 더 높은 생활수준을 경험하게 된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자신의 갈망수준이 더 높게 조정될 것임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미래의 안녕감을 예측하므로 미래의 행복을 실제보다 더 낙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Easterlin, 2006).

6) 유대감(relatedness)이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의미한다. 유능감(competence)이란 외부 환경을 통제하고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감정을 의미한다. 자율(autonomy)이란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의미한다(Ryan and Deci, 2001).

7) 사람들은 결과로부터도 기쁨이나 고통을 겪지만 그 결과를 낳는 과정이나 절차로부터도 기쁨이나 고통을 겪는다. 행복경제학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효용을 소비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결과적 효용'과 그 결과를 낳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절차적 효용'으로 구분한다(Frey and Stutzer, 2005).

8) 몰입 경험이란 사람들이 취미와 같은 어떤 활동에 완전히 흠뻑 빠져 있을 때 일어나는 만족감의 고양 현상을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90).

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외재적 욕구(extrinsic desire)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만족감을 준다기보다는 만족감을 제공할 수단들을 향한 욕망으로서, 물리적 재화 및 소득⁹⁾ 등을 얻으려는 욕구나 높은 지위와 명성 등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향한 욕구를 의미한다. 외재적 욕구 충족과 관련된 재화들은 통상 사치재나 위치재(positional goods)¹⁰⁾라는 용어로 개념화되는데, 고급 승용차나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고가주택들이 거론된다(Deci and Ryan, 2000).

행복경제학에 따르면, 외재적 욕구와 관계가 깊은 재화들일수록 사회적 비교의 대상이 되고 쾌락 적응이 빠르며 결국 갈망수준 또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내재적 요인이 강한 재화나 활동은 갈망수준이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만족감도 오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사회적 비교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매번 새로운 활동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이 계속 갱신되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행복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재적 속성과 금전적 목표가 아니라 내재적 속성과 비금전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가·예술작품 감상·자원봉사 등 내재적 속성이 큰 재화나 활동이 가져다줄 미래의 효용을 낮게 평가하는 반면, 외재적 속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함으로써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얻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결국 이런 선택이 사람들의 행복수준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이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는 속도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으로, 이처럼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9) 소득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소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가치라고 생각해 자신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Layard, 2005).

10) 위치재(positional goods)란 그 가치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보석이나 명문 대학 졸업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소수가 소비할 때만 효과가 크다는 특징도 있다. 과외나 사교육처럼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명문학교 입학이 보장된 학군이나 고소득층 거주 지역과 같이 그 이용이 원천적으로 소수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11) 좋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뤄져도 그 경험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물리지 않는다. 친구와의 교류는 시야를 넓혀 주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학자들은 이와 유사하게 평소에 항상 쓰고자 원했던 논문이나 책을 쓰게 되었을 때 자신을 그 과정에서 흠뻑 담그는 몰입을 경험한다. 이때 발생하는 효용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Frey, 2008).

(4) 행복경제학의 제안

사람들은 외재적 속성을 띤 재화나 활동보다는 내재적 속성을 띤 재화나 활동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더 크거나 더 오래 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교나 적응 등의 이유로 인해 보다 큰 행복을 주는 재화나 활동의 선택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행복경제학에 따르면, 이 문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적응이나 사회적 비교는 인간이 생명체의 일종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유전자 속에 각인시킨 일종의 본능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겨서는 이러한 체계적 오류가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의 선택에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나은 선택지가 희생되는 나쁜 균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부정책이다.

Layard(2005)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것은 물질적 부의 생산이 아니라 행복에 있다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공공정책의 명시적 목표로 설정하자고 제안한다. 이때, 공공정책의 기본 방향은 개인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완화함으로써 각자가 보다 행복한 선택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주요한 정책과제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고, 삶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양질의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사람들이 여가보다는 소득에, 생활보다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선택을 바꾸기 위한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소득세 인상이 제시된다.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돈이 이동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잃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국가 전체의 평균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행복경제학의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복은 경제성장이나 이동성보다는 삶의 안정성으로부터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손실을 기피하는 정도가 대단히 크다. 이들에 따르면,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가족관계, 금전적 소득, 일, 공동체와 친구, 건강 영역에서의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 행복경제학에서 광고나 TV, 이동성을 높이는 활동, 지위를 둘러싼 경쟁, 과시적 소비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축소나 누진과세 부과를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지역사회의 사교활동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권유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지출확대를 제안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유럽의 행복경제학 연구를 주도한 취리히 학파는 정치 참여가 행복을 제고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해 참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한층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발안(Initiative)이나 국민표결(Referendum)의 확대는 사회 계약의 합의적 기반을 강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임으로써 사람들이 협소한 이기적 동기를 넘어서서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절차적 효용과 내재적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다양한 기능들을 가장 적절한 규모의 관할구역, 곧 목적자치단체들(Functional, Overlapping Competing Jurisdictions: FOCJ)로 분권화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해질수록 주민들의 선호에 관한 더욱 적합한 정보들에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의 직접적 통제라는 이상에도 근접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공공지출의 비용과 편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동기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Frey, 2008).

행복경제학은 행복의 제고를 위해 정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가 ‘자비로운 독재자’(benevolent dictator)가 되어 각 개인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나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믿는다. 정부는 이보다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제도 설계 및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 정책담당자들의 재량이나 강요는 최소화하고 개인들의 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받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무엇이 나의 쾌락과 만족감을 높여주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냄과 동시에 정치가나 관료가 일반인들에 비해 장래의 효용에 관한 예측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통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행복경제학에서 제안하는 제도설계나 정책집행은 자유온정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¹²⁾와

12) 자유온정주의는 사적이거나 공적인 기관이나 계획자가 선택상황의 우선적인 대안이나 초기치를 정하는데 개입하되, 그 이후의 선택은 강요하지 않고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자고 주장한다. 대안들에 우선순위를 정해 초기치를 결정하는데 개입하므로 개입주의 또는 온정주의이지만, 선택과 결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몫이라는 점에서는 자유주의이다. 소극적 의미의 개입이므로 ‘nudger’로 표현된다(이규상·홍훈, 2009).

친화력이 크다. 이 입장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자신과 사회 전체에 더 유용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택환경을 조성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Ⅲ. 행복경제학을 둘러싼 쟁점들

1. 행복을 설문조사와 자기평가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행복경제학이 행복을 설문조사로 측정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스스로 행복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두뇌를 촬영해 보면 좌측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면역체계도 더 왕성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친구와 친척들로부터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며 더 자주 웃는다는 사실도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 곧 자가보고는 신뢰할 만하다는 게 행복경제학의 기본 입장이다(Layard, 2005).

그러나 사람들이 형성하는 주관적 만족감이 비합리적이고 체계적 오류를 떨 여지가 크다는 연구성과를 고려할 경우, 설문조사나 자기평가에 기초한 행복도 측정의 방법론은 그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큰 효용을 주는 재화 대신 미래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지금 당장 높은 효용을 주는 재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또한 적응이나 사회적 비교로 인해 생활수준의 객관적 개선과 무관한 변화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재화를 구입하며, 반대로 삶의 객관적 조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적응이나 사회적 비교가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관적 자기평가를 행복의 유일하거나 대표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Easterlin, 2006).

한편, 행복경제학의 행복 측정 방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다. Skidelsky and Skidelsky(2012)는 각자는 자신의 행복 여부를 판단할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물어 그것으로 행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GDP도 인간의 행복을 보여주는 잘못된 지표이지만 그 대신 국민행복계정을 만들려는 시도 역시 잘못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행복 측정법은 사람들이 각자의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만 측정할 수 있을 뿐, 행복 그 자체를 짚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행복경제학은 나의 행복은 다른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안다는 전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러한 가정을 문제 삼는 것은 전체주의나 가부장주의라는 위험한 입장과 관련이 깊다고 반박한다.

2. 행복에 우열을 매길 수 있는가?

행복경제학에 따르면, 행복이란 “삶을 즐기는 좋은 느낌이자 각자가 느끼는 즐거운 심리적 상태”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는 믿음이나 유쾌한 감정을 수반하는 주관적인 경험”이다(Layard, 2005; Kraut, 1979). 이러한 쾌락주의적 행복관은 기원전 3세기 키레네 학파로에서 시작되었으며, 벤담의 고전적 공리주의로 연결되었다. 벤담의 고전적 공리주의는 올바른 행동을 사회 전체의 행복이나 쾌락을 극대화하는 행동으로 규정했는데, 이때 쾌락의 대상이나 내용보다는 수량이 중요하다. 행복경제학자들은 행복의 총합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놓고는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수량들을 집계하여 행복을 짚 수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 벤담으로 소급될 수 있는 이 입장은 사람들의 판단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별도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다양한 쾌락들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로 재는 것의 타당성 여부이다. 쾌락에는 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으며, 사회가 권장하지 않는 나쁜 종류의 쾌락도 있다는 현실을 주목해 모든 종류의 쾌락을 동등한 것을 간주하고 하나의 척도로 합산하는 것은 오류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쾌락이 동등하지 않을 개연성은 행복경제학의 연구성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람들의 주관적 만족감을 더 많이 이끌어내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재화나 활동이었고, 주관적 만족감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가 불필요한 재화나 활동이었는데, 이는 주관적 만족감 곧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쾌락과는 별개의 중요한 판단기준

이 별도로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심리학 내에도 욕구를 그 성격에 따라 구별하고 욕구들 사이의 위계를 강조함으로써 행복에 우열을 매길 수 있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위계적 순서에 따라 발달한다. 가장 보다 낮은 차원에 속하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가 생명체 일반의 욕구라면, 애정 및 소속 욕구, 존중 욕구, 자기실현 욕구는 위로 갈수록 인간에게만 고유한 욕구이다(권석만, 2010).

3. 만족한 바보와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중 누가 더 행복한가?

쾌락들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 다양한 욕구들 사이에 우열을 매길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결국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다. 만족하지 못한 소크라테스가 만족한 바보보다 낫다.”며 나름의 방식으로 공리주의를 구출하려던 Mill(2012)의 진술은 이 문제를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각자의 경험에서 느끼는 행복이 양과 질에서 모두 다양한 범위를 지닌다고 믿었던 그는 시의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만족이 육체적 탐닉으로 느끼는 만족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쾌락을 높은 쾌락과 낮은 쾌락으로 구분하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만족한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한 소크라테스가 더 행복하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이러한 밀의 진술에 대해 Layard(2005)는 밀의 직관은 옳았으나 그의 주장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고통 그 자체를 좋은 것으로 여길 수는 없으며 만족한 바보가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보다 더 행복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존경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복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복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독배를 마셔야 했던 그가 만족한 바보보다 더 행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 관련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눈앞의 기쁨을 좇는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Ryff(1989)는 삶의 목적, 자율성, 긍정적 관계,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 등의 요소를 세련된 측정방식으로 분류한 후 심리학적 행복

지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지수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행복도 또한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세속적 기준으로는 불행했는지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삶의 목적을 구현한 사람이라면 높은 행복감을 실제로 느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행복은 주관적 쾌락이 아니라 지혜와 덕성의 성취물로, 선한 인간의 행복을 맛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보았다. 이들의 행복관을 현대에 적극적으로 계승하려는 Skidelsky and Skidelsky(2012)도 누군가의 행복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만족한 바보는 쾌락을 느끼고 있음에도 행복하다고 할 수 없고,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는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행복하다는 역설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우리 삶의 행복을 개인의 주관적 쾌락으로 환원하지도 않고, 부분들의 행복으로 합산하지도 않는 시각은 결국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행복 개념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어로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이다. 에우다이모니아란 자신의 '다이몬(daimon), 곧 진정한 자아와 함께 살아가고 각자의 잠재적 능력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삶이다.¹³⁾ 이때 '다이몬'은 탁월한 존재 또는 인간이 도달하고자 분투하는 완벽한 상태로서, 사람들의 삶에 방향과 의미를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에우다이모니아 이론을 완성시킨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을 통한 만족을 짐승이나 노예의 행복으로 간주하고 에우다이모니아, 곧 진정한 행복이란 덕(virtue)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한다.¹⁴⁾ 이때 덕이란 우리 안에 있는 최상의 것, 곧 탁월함(the best within us, or excellence)을 지칭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행복은

13) 한편, Bruni(2012)는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가 eu(=good)와 daimon(=demon or spirit)으로 구성된다며, 좋은 영혼을 가진 이 또는 좋은 운을 지닌 이만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에 의하면, 행복(happiness)과 행운(luck or fortune)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었다. 그러던 것이 소크라테스에 오면서 '운'의 의미를 잃고 '옳음 좋음', 그 자체 완전한 것이 되었다.

14)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도 모든 사물처럼 목적(telos), 곧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삶(eudaimonia)이라고 주장했다. 즉 행복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 곧 영혼이 덕성과 조화를 이루는 활동인 것이다.

마음의 심리적 상태나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으며 다들 찬양하고 바랄 만한 존재의 상태가 된다(Waterman, 1993). 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IV.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

1. '좋은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날 고대 그리스의 에우다이모니아를 복원시킴으로써 보다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좋은 삶'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자고 제안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에우다이모니아, 곧 좋은 삶(good life)이란 이성의 활동을 통해 탁월함¹⁵⁾을 이끌어내고 발휘하는 삶이다. 행복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품성의 탁월함인데, 그 핵심은 중용이다. 이때 중용이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로서, 이런 중용의 상태는 산술적 중간이라기보다는 기하학적 중간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슬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즐거워하거나 저항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종한다면,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닌 것이다.¹⁶⁾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과 명예 그리고 부의 추구 그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며 물질적 욕망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그 욕망이 넘치거나 지나친 데 있는데, 인간의 본성에는 지나침을 향한 악덕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좋은 삶은 쾌락·명예·부 등을 향한 욕망이 품성의 탁월함, 곧 중용을 통해 순화되고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될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Aristoteles, 2011).

좋은 삶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우정(philía)을 들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15)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탁월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성의 탁월함이고, 다른 하나는 품성의 탁월함이다. 지성의 탁월함은 유전과 교육의 결합을 통해 생겨나며, 품성의 탁월함은 모방, 실천, 습관 등을 통해 얻어진다(Aristoteles, 2011).

16)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고통에 대해 쾌락을 최대화하는 공리적 의미가 아니라, 고통한 것에서는 기쁨을 느끼고 비천한 것에서는 고통을 느끼는 능력, 곧 덕성에 있는 것이다(Sandel, 2010).

그 좋은 관계가 바로 우정이다. 그에 따르면, 우정에는 유익을 이유로 성립하는 우정과 즐거움을 이유로 성립하는 우정 그리고 탁월함을 이유로 성립하는 우정이 있는데, 좋은 삶을 가능케 하는 우정은 탁월함을 이유로 성립하는 우정이다. 이때 친구가 어떤 수단으로, 가령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선택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좋은 삶의 구성요소로서의 참된 우정은 이러한 순수성에 더해,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어야 한다는 상호성, 서로 상대를 아끼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도성을 띤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서이다. 이때 우정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기능인 생각과 말을 나누는 것이며, 우정은 인간의 이처럼 고유한 사회성을 완성시키는 즐거움을 동반한다. 인간은 '진정한 자아'와 함께 살아가고 각자의 잠재적 능력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자아'인 친구와의 좋은 관계인 것이다. 한편, 이때의 우정은, 좁은 의미의 수평적 친구는 물론 정치적 공동체에 소속된 동료 시민들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간관계라는 점에서, 인격적 활동임과 동시에 정치적 활동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의 정치란 시민들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의 환경을 만드는 활동이자,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덕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공동선을 실현함으로써 좋은 삶을 직접 구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강상진 외, 2011; Aristoteles, 2011).

2. 쾌락주의 전통과의 토론

그런데 행복경제학이나 심리학의 주류는 쾌락주의 전통을 계승해 발전한 까닭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다. 가령 서은국(2014)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은 '칭송받을 만한' 삶의 구성 요인이 아니라며 탁월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가치와 행복과 가치를 뒤섞는 것은 인간 생존의 핵심 조건인 쾌락적 즐거움을 놓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때,

첫 번째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오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쾌락에 대한 지나친 탐닉을 비판했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같은 적당한 쾌락까지 부정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남들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것이 우리 불행의 큰 원인인 상황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류의 도덕적 설교는 개인을 억압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듦으로써 행복을 방해한다는 두 번째 우려는 설득력도 있고 우리 현실에도 부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우려는 또한 쾌락/행복과 가치/도덕은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으므로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모종의 분업관이 전제로 숨어 있다는 점에서 에우다이모니아 전통과 쾌락주의 전통과 오랜 대립도 상기시킨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쾌락, 좋은 삶, 행복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오랜 난제로 귀결되는데, 이미 100여년 전 젊은 시절의 케인즈에 의해 큰 틀에서는 해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케인즈는 22살에 쓴 “Virtue and Happiness”에서 쾌락· 좋음¹⁷⁾· 행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들로 제시한다. 쾌락에는 육체적 욕망의 만족, 도박이나 백일몽과 같은 기대의 흥분, 새로운 경험으로부터의 흥분, 자긍심·허영·야망·적의 등으로부터 오는 쾌락, 모든 종류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쾌락 등이 포함된다. 행복은 좋음과 쾌락의 중간에 그리고 지혜와 무지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행복이 쾌락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때 행복이 쾌락을 포함하지만 쾌락으로만 구성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행복의 경우 쾌락과 달리 고통의 부재를 필연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행복은 쾌락과 달리 고통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젊은 케인즈에게 행복이란 이질적이고 비교불가능한 육체적 쾌락과 욕망, 그리고 품성과 지성의 탁월성이 합쳐진 어떤 것이었다. 인간은 탁월성의 도움을 받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주어진 기회에 맞추어 욕망을 수정하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임으로써 행복과 좋음¹⁹⁾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Carabelli and Cedrini, 2009).¹⁹⁾

17) 좋음(goodness)이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로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목적을 달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좋음은 덕, 곧 품성과 지성의 탁월함, 특히 중용의 활동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18)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19) 벤담의 전통에서 쾌락과 고통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면, 케인즈가 계승하려 했던 좋은 삶 전통에서는 이러한 균형을 뛰어넘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지향하는데, 삶의 목적, 진정성, 자기실현, 참여, 숙의 등이 좋은 삶의 중요한 구성요소

서은국(2014)의 아리스토텔레스 비판이 겨냥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다시 이를 자기실현이나 삶의 완성과 같은 추상적이거나 윤리적 목표로 연결시키는 발상 자체에 있다. 그는 진화생물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해야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삶의 목적은 생존이고,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도 논리구조는 서은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행복, 곧 쾌락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한 수단이며, 인간적 완성(human flourishing)이라는 삶의 궁극적 목표에는 생명체의 자기보존 및 번식이라는 개념이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생존이나 번식의 자리에 좋은 삶의 목적이 놓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쟁점은 생존이나 번식과 좋은 삶은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좋은 삶이란 생존이나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틀에 인간적 무늬를 새겨넣고 상상력을 발휘해 한층 고차원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생존이나 번식을 잘하기 위해서도 쾌락에는 일정한 절제와 규율이 필요한데, '좋은 삶 전통'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절제와 규율을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좋은 삶의 목표, 탁월성의 활동이고 가치와의 조화인 셈이며, 젊은 케인즈의 에세이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탁월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억압하거나 남들을 의식하게 만들며 일상의 소소한 삶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쾌락과 가치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한층 잘 감상하고 음미할 수 있는 쪽으로 능력을 배양하고 이웃과 생각과 말을 나누며 더 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가능성도 크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쪽이 더 많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경제 영역에서 쾌락과 가치의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가치의 추구가 억압이나 과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앞으로 이어질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는다.²⁰⁾

들로 거론될 수 있다(Becchetti et al., 2015).

20) 오늘날 '좋은 삶' 전통은, 거칠게 정리하자면, 자기완성이나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영미 전통과 상호성, 사회적 신뢰, 공공행복을 강조하는 이탈리아 시민경제학 전통으로 다시 나뉠 수 있다. 전자가 상대적으로 각자가 좋은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객관적 조건 조성을 더 강조한다면, 후자는 개인이 아닌 시민들로서 양질의 관

투고 일자: 2016. 6. 14. 심사 및 수정 일자: 2016. 6. 19. 게재 확정 일자: 2016. 6. 21.

◆ 참고문헌 ◆

- 권석만 (2010),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철학사상』,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36호, 121-152.
- Kwon, S. (2010). “The Relation between Desire and Happiness from the Viewpoint of Psychology”, *A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36, 121-152(written in Korean).
- 김 균 (2013), “이스털린 역설과 관계재”, 『사회경제평론』, 한국사회경제학회, 42권, 19-48.
- Kim, K. (2013), “Easterlin Paradox and Relational Goods”, *The Review of Social & Economic Studies*, 42, 19-48(written in Korean).
- 김재홍·강상진·이창우 (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구조: 철학적 입문”, 김재홍·강상진·이재홍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길.
- Kim, J., Kang, S. and Lee, C. (2011), “The Structure of Ethica Nichomachea”, Aristoteles, *Ethica Nichomachea*, Gill(written in Korean).
- 서은국 (2014), 행복의 기원: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21세기북스.
- Suh, E. (2014), *The Origin of Happiness*, 21 Century Books(written in Korean).
- 이규상·홍훈 (2009), “자유온정주의와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제57집 제3호, 171-193.
- Lee, K and Hong, H. (2009), “Libertarian Paternalism and Laissez-faire”, *Korean Economic Review*, 57(3), 171-193(written in Korean).
- Aristoteles (2011), *Ethica Nicomachea*, 김재홍·강상진·이창우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길
- Becchetti, L., Luigino Bruni and Stefano Zamagni (2015), “Human Values, Civil Economy, and Subjective Well-being”, Edited by John F.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World*

계 형성을 통한 쾌락과 가치의 조화 및 공공행복의 달성을 더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좋은 삶 전통 내부의 두 흐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 역시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 Happiness Report*,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Bruni, Luigino (2012), *The Wound and the Blessing: Economics, Relationships, and Happiness*, Translated by N. Michael Brennen, New City Press.
- Carabelli, A. and Mario A. Cedrini. (2009), "The Economic Problem of Happiness: Keynes on Happiness and Economics", Presented at the 13th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analysis. Thessaloniki, University of Macedonia, Greece, 23-26, April 2009.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A. Davis and M.W. Reder (eds.), *Nation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witz*, New York and London: Academic Press, 89-125.
- _____ (2006), "Building a Better Theory of Well-Being", in Luigino Bruni and Pier Luigi Porta (eds.), *Economics and Happiness: Framing the Analy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9-64.
- Frank R. (1997), "The Frame of Reference as a Public Good", *Economic Journal*, Vol. 107, 1832-47.
- Frederick, Shane and George Loewenstein (1999), "Hedonic Adaptation," in Daniel Kahneman, Ed Diener, and Norbert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Russell Sage, 302-329.
- Frey, B. (2008), *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 Cambridge (US): The MIT Press, 유정식 · 홍훈 · 박종현 옮김 (2015), 『행복: 경제학의 혁명』, 부키.
- Frey, B. and Alois Stutzer (2005), "Beyond Outcomes: Measuring Procedural Utility", *Oxford Economic Papers* 57, 90-111.
- Kahneman, D., Peter P. Wakker and Rakesh Sarin (1997), "Back to Bentham? Explorations of Experienced Uti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2), 375-406.
- Kraut, R. (1979),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Philosophical*

- Review*, 87, 167-196.
-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Penguin, 정은아 옮김(2013), 『행복의 함정』, 북하이브.
- Lykken, David and Auke Tellegen (1996), "Happiness is a Stochastic Phenomenon", *Psychological Science*, 7(3), 180-189.
- Mill, J. S. (2012), *Utilitarianism*, Start Publishing LLC(Second Edition, 1864).
- Ng, Y.-K. (1997), "A Case for Happiness, Cardinalism, and Interpersonal Comparability", *Economic Journal*, Vol. 107, 1848-1858.
-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nce", *Economic Journal*, Vol. 107, 1815-31.
- Ryff, Carol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6), 1069-1081.
- Sandel, Michael J. (2010),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arrar, Straus and Giroux.
- Schwartz, Barry, A. Ward A, J. Monterosso, S. Lyubomirsky, K. White, D. Lehman (2002), "Maximizing Versus Satisficing: Happiness is a Matter of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5), 1178-1197.
- Skidelsky, R. and Edward Skidelsy (2012). How Much is Enough?. 김병화 역 (2013),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부키.
- Waterman, A. S. (1993),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Eudaimonia)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4. No. 4. 678-691.

Happiness Economics and Eudaimonic View of Happiness

Jonghyun Park*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two traditions of happiness research, i.e., the hedonic view of happiness and the eudaimonic view of happiness. The second section is concerned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instream economics and the happiness economics focusing on social comparison, hedonic adaptation, aspiration, and examines why material progress does not always make one happy. The third section makes it certain that the hedonic views of happiness is unsatisfactory in the measurement of qualitative differences in happiness and the relation between pleasure happiness. The last section asserts eudaimonic view of happiness may resolve the problems.

KRF Classification : B030102

Key Words : happiness, pleasure, eudaimonia, good life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ecohis@gntech.ac.kr